

선교사 복지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신임 해선위원장 유동선 목사



해외선교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 서울제일교회에서 제34회 총회를 갖고 새 위원장에 유동선 목사(춘천중앙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해선위는 선교타운 조성을 위한 제반준비, 선교지 권역별 대표자회 조직, 효과적인 선교지 재산관리, 효과적인 선교정책/전략개발, 선교복지기금 기반마련, 지속적인 선교사 자원 및 후원자 개발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갈 신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임기 내 역점사역으로 '선교사 사후관리' (복지)를 언급하셨다. 어떤 취지이며,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선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애를 써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갔다 오면 막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금이나 보험, 주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파송하고 일 잘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좀더 마음 놓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년이란 짧은 임기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초석을 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안식관 건립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복지 차원에서 안식관/훈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큰 돈이 들기도 하구요. 지금 현재는 아시는 대로 수정교회 옆에 안식관과 훈련원이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만, 임대한 것이구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안정적인 또 질 높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선위는 이미 추진위를 구성,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까운 곳에 동지를 틀게 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한 재정이 문제입니다만, 그 동안 비축해 놓은 것도 좀 있고, 수정교회로부터 돌려받을 임대료, 그리고 천호동교회로부터도 '해선위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니, 이 모든 힘을 모아 정말 선교사들을 편안하게 하는 안식관/훈련원이 우리 앞에 탄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SEND 2028' 이란 말이 점점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이미 총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

다만, 한마디로 해선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해선위 창립 50주년 회년이 되는 2028년까지, 첫째 1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둘째 100개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셋째 1,500개의 후원교회를 연결하고, 넷째 100억의 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인식, 특별히 해외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해선위 후원교회/후원구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인가?

“나라 재정이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당면과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동안 우리 성결가족들이 해외선교에 큰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참여하는 후원교회가 415개 교회, 후원구좌가 719개 구좌(1, 2, 3후원 전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결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최근에 임자도 안에 있는 전장포교회(이영택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섬교회이고, 또 교인이 많지도 않은 형편에서도 이날이 일곱 번째 파송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인들 서너 명이 일당을 모아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한다는 담임목사의 설명은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할 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라구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힘에 부치도록 받드는 이 교회야말로 가장 큰 교회가 아니겠냐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날 우리 해선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결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는 한, 우리의 선교미래는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